

전주에서 만나는 동학혁명의 의미와 가치

‘동학의 글로벌리제이션 : 동학혁명과 전라도 전주’

전주시 · 동학학회, 125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을 맞아 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시와 동학학회(회장 최민자)는 지난 10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을 맞아 ‘동학의 글로벌리제이션 : 동학농민혁명과 전라도 전주’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주 일대에서 펼쳐진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현대의 시대의 시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전주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운영 동학혁명연구소장의 ‘전라도의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과 전

주시의 역사적 위상’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문을 연 학술대회에서는 △전주 지역의 포교활동과 전주 일대의 포교 과정 연구 △동학농민혁명 시기 전주성 결투와 전주 화약 과정 △동학농민혁명과 전쟁 사이, 집강소 운영의 역사적 의미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전주성 전투와 문학적 의미 △브랜드로서 전주동학농민혁명과 지속가능한 역사교훈여행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어 11일에는 전주 경기전과 풍남문을 비롯해, 김재와 부안, 정읍 등 인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도 함께 답사했다.



전주시와 동학학회는 지난 10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을 맞아 ‘동학의 글로벌리제이션 : 동학농민혁명과 전라도 전주’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는 조선왕조의 분향 게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곳이며 발상지인 동시에 동학농민군에

이는 1894년 4월에 시작된 1차 봉기에서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이 청군 및 일본군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했으며,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해 치안과 폐정개혁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최민자 동학학회장은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전라도의 심장 격인 감영이 위치했던 전주는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변혁운동의 중심지로 역할을 했던 지역”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새로 발굴된 사료 분석을 통해 전주 일대에서 동학이 전개된 실상과 그 의미를 밝히고 전주 출신의 동학농민군 및 동학지도자들과 그 활동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주 동학의 실상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를 학계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144명 검거

전북경찰이 실시한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기간 동안 100여 명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최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144명을 검거했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의료현장 폭력,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체육계 체벌·가혹행위, 주취폭력 등이다.

범죄 유형은 폭행이 56.3%로 가장 많았고, 무전취식 19.4%, 업무방해 11.1% 등으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상습성과 여죄 등을 따져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보복이 우려되는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독서대전 성공 위해

고창 한국지역도서전 방문

전주시립도서관은 지난 10일 ‘2019 전주독서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전주독서대전 추진협의체와 실무기획단, 도서관 직원 등 35명이 함께 고창 한국지역도서전을 방문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향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견학은 전주시 대표 독서문화축제인 ‘2019 전주독서대전’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2019 지역출판 전시 △로컬 북토크 ‘학교 저자와의 만남’ △지역출판포럼 ‘지역에 그림책, 어린이책이 산다’ △책 읽는 버스 △함박떡작가 전성시대전 △천안독자상 후보, 서평책 전시 등 다양한 행사·전시·부스를 체험했다.

/송효철 기자

금암노인복지관, 어버이날

주간 릴레이 행사 성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주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주간 릴레이 행사가 펼쳐졌다.

‘감사해孝, 존경해孝, 사랑해孝’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어버이날 기념식은 △영화관람 △특커노인 및 경로당 방문 후원물품 전달 및 케이션 달아드리기 △점심식사 제공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어버이 주간 릴레이 행사 첫날에는 홀로 거주하는 덕진구 어르신 110명에게 점심식사를 아리랑하우스(대표 김진경)에서 제공했다. 이날 식사는 김점다리봉사회, 블랙야크, 개인후원자(박민숙) 등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의 후원의 손길들이 이어졌다.

금암노인복지관은 또 유창경로당 외 14곳을 방문해 후원물품과 케이션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9일에는 한국토종닭협회 후원으로 어르신들이 다가오는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340인원 삼계탕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아리랑하우스는 이날 홀로거주하는 완산구 어르신 130여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송효철 기자

무선 이어폰 홈친 20대 검거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홈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모(23)씨를 붙잡고 인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 46분경 익산 시내 한 매장에 진열된 9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홈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매장에서 2차례 걸쳐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의 도난방지턱을 제거해 이를 홈친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6·25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전주시, 이달 중 매장 추정지 전수조사 시작 발굴 착수

한국전쟁 때 희생당한 전주지역 민간인들의 유해 발굴이 시작된다.

전주시는 5월 중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발굴은 한국전쟁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고, 유해발굴을 통해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며 유족의 명예도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은 용역을 통해 이달부터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시굴·발굴이 진행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8~9월중으로

유해발굴을 진행한 후 10월 중으로 유해수습 및 감식 및 보존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11월에는 보고회를 거쳐 발굴된 유해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세종시 추모의 집에 봉안 할 계획이다.

성종재 유족회장은 “몇 분 유해가 발견될지 모르겠지만, 한두 분이라도 지금보다 나은 환경으로 모셔서 편히 영면에 들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주시 차원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

12일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앞에서 태공 율주 대종사와 송하진 도지사, 이근재 신도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행사를 가지고 있다.

첫마중권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현판식

전주역 앞 첫마중권역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과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을 토대로 전주관광·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됐다.

이는 전주역세권에서 펼쳐질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기구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먼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대규모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장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백제대로 805 태평양빌딩 4층에 마련된 현장지원센터는 총 260㎡ 규모로 업무공간, 회의실, 주민 학습·소통 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이면 누구나 방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장지원센터는 향후 △도시재생대학 등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지역주민 리더 양성 △기타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에 전담하는 등 주민 공동체와 함께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힘을 모으고,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시는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동영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 철도공사 주요인사,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역 시설개량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은 국비 300억원과 철도공사 100억원 등 총 450억원을 투입해 선상역사를 증축하고 주차시설 조성 등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이달 말 국제설계공모도 진행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 1호’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시, 수소에너지네트워크·발맥스기술·토지주와 협약 체결 하이넷과 협력으로 민간보조사업 선정 인프라 구축 가능

전주시 송천동에 올해 제1호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발맥스기술, 토지주와 연내 완공을 목표로 ‘전주1호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1호 수소충전소는 환경부 위탁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관한 민간보조사업 공모에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이하 (주)하이넷)가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1호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면 정부 수소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맞춰 전주에도 수소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최초 인프라가 조성된다.

수소충전소는 국비 15억원과 (주)하이넷 15억원 등 총 30억원이 투입돼 호남고속 송천동 버스회차지(송천동 2가 1190)에 조성될 예정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지자체가 지방비를 부담해 조성하는 지자체 보조방식은 달리 전주시 1호 수소충전소는 민간 선투자방식으로 구축에 소요되는 시비 부담은 없다. 시는 향후 수소충전소 운영비의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충전방식은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해 놓는 튜브트레이러 방식으로, 트레일러 속에 보관돼 있던 수소가 압축 패키지를 거처 수소차량으로 충전된다. 이는 배관망을 설치할 수 없는 현재 보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공급방식으로 평가된다.

1호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1시간당 25kg을 충전할 수 있어 하루에 버스 8대 및 승용차 25대의 충전이 가능하다. 시와 (주)하이넷은 최근 환경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비를 1회 추

경에 대해 반영한 만큼, 지속 증가하는 수소차량에 대한 수요와 보급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충전용량을 2배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수소시내버스 16대 보급을 시작으로 전주 시내버스 400대 전 차량을 연차적으로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과 수소차 보급에도 힘쓴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친환경 수소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완주군과 함께 전주-완주 수소산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소산업 방향을 설정해 국토교통부 주관 수소시범도시 공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그간 수소 에너지 보급 기반 인프라를 ‘전주1호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보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을 찾기 위해 전주 시 총선구 구축 희망부지에 대해 (주)하이넷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다. /송효철 기자

보이스피싱 전달책 잠복 경찰에 ‘덜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받아 조직에게 건네려던 전달책이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경 B씨로부터 현금 2천 3백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건네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전화사기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돈을 받으려 온 A씨는 은행 주변에 미리 잠복하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총 6000만원을 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석훈 기자

드론축구 완성도 높여 국제대회 준비

전주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의 완성도를 높여 국제대회 개최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드론축구는 최근 국제항공연맹(FAD)이 국제 경기종목으로 채택하면서 오는 2025 전주 드론월드컵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지난 10일 전주부시장실에서 드론·스포츠·조형 등 각 분야별 전

문가들과 함께 드론축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날 국제항공연맹(FAD)이 전주시의 드론축구 규정을 채택함에 따라 국제경기 시범종목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드론축구 관련 대회 운영의 진행·구성 방법 △소리조형 개선 방법 △드론 디자인 방법 △관중 흥미유발 방법 △드론축구 마케팅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드론 비행소리에 대한 기술적 개선 필요성 △드론축구 경기장으로 관중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관람석 전체공간 구성 △대형모니터 설치를 통한 경기상황 중계 △스마트폰을 활용한 드론축구 마케팅방법 등 개선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에 대해 7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2019 드론산업 국제 박람회전 전국드론축구대회’에 반영해 더욱 완성도 높은 드론축구대회를 선보일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